

# 제주 'ASF 청정지역' 사수 총력

<아프리카 돼지열병>

### 도, 19개 점검반 편성해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 올해 멧돼지 219마리 사살... 포획 포상금도 상향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제주도가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점검반 19개반(38명)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도내 농가들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에서는 농장 입구의 출입차단

조치 및 소독기 작동·실시 여부, 소독약품 적정사용요령 준수, 외국인 노동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법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도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직후 공항 면에서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시·도 돼지고기 및 생선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축산밀집지역 등에 거점소독

시설 10개소를 설치·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 나서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219마리를 사살했다. 포상금은 10월 28일 이전에는 8만원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자가소비 금지로 20만원으로 오른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뜸해지면서 도내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문화공간 '낭'서 주말마다 문화예술교육

### JDC·한예중 공동프로젝트 도민 대상 6개월간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문화공간 '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와 공동으로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예중과 함께하는 JDC 문화가득 사업'은 JDC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EDU(주)가 주관한다. 오는 30일부터 6개월 동안 '문화가득', '지역상생' 두 가지 주

제로 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가득 프로젝트는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레시피', '연극놀이' 프로그램과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공연 '제주도민과 예술가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미술레시피' 프로그램은 1~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오후 2개의 강의로 구성되며, 수강인원은 각 20명으로 총 8주간 운영한다. '연극놀이'는 만 5~7세의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오후 2개 강의로 구성되며 수강인원은 각 30명(아동 15명, 부모 15명)으로 총 4주간 운영한다.

오픈공연은 12월부터 매월 1회 총 6회에 걸쳐 '제주도민과 예술가의 만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지역상생 프로젝트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영상제작 경력자 및 브이로그 활동 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영상 시나리오 작성과 사진 촬영 및 조명, 최종 결과물을 위한 특강 및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전국 우수시책으로 선정

서귀포시의 '시민만족! 행정만족! -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 사업이 전국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귀포시는 13일 전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이 전국 우수 시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심사를 거친 모든 분야의 우수시책 104건 중 최종후보에 오른



서귀포시의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6건에 대해 발표와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시가 발표한 시책은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운영과 센터에서 시행중인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과 직

접처리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소형폐기물 무상배출제 등 6가지로, 시민 배출편의 중심 시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 문화도시 선정기원

아듀! 2019

서귀포 관광극장

# 뮤직 페스티벌

2019년 11월 16일 오후 5시

보컬리스트 장민	보시노바 듀오 브루나	아디안 & 피아노 데보유	색소폰 김우환
신트롬보스 보컬 테니스	콘트라베이스 양동석	기타 손스미스	드럼 최요셉
		시화 박세영	비치 박지혜

주최: 서귀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단

공연 대관 문의 064732-1963

본 프로그램은 작가의 창작권 및 문화예술시장 위생사업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초기 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즉 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17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직업전문학교  
1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취업

## '전기기사 실무자과정' 자격취득 및 취업

전기기사(고정절), 산업기사(고안진)  
전기기능사(84%취득)  
**취업 94%**

강00 (주)아프로정보통신	부00 (한성기전)
고00 (롯데시티호텔)	성00 (해인전력)
고00 (동부방재)	손00 (인텔통신)
김00 (아성기술훈)	오00 (서광산업개발)
김00 (제주전기안전관리주)	오00 (아성기술훈)
문00 (대은전기)	임00 (윤성제어)
박00 (선호텔)	최00 (최조명인테리어)
박00 (성우전기)	현00 (코리아에너지)

- 이름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생략 함

전기기사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수료(2019.7.23.)한 제2기 수료자 여러분의 취업 및 자격취득을 축하합니다.

**JW J-FACADEMY**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훈련기관

http://www.jejujw.com  
064-747-5252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3-26 3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도관광협회가 14-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메가쇼 2019 시즌2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공

## "올 겨울 제주로"... 관광객 유치 나서

### 도관광협회 메가쇼2019 참가 관광자원·시티투어 등 홍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제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관광협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메가쇼 2019 시즌2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주최 측은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관광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제주 관광자원과 제주여행 종합

쇼핑몰, 제주시티투어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 골프장 5개 업체가 고부가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장홍보를 하는 등 수도권 시장에서의 동계 제주 관광 수요 확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도관광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라산빵, 말총카드지갑 등 제22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판매에 나서 제주관광 기념품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객의 욕구와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제주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 오늘 '다같이더가치 혼디장' 사회적경제 체험마당 운영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1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하는 다같이더가치 혼디장'을 공단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혼디장은 공단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인 '다같이더가치'와 연계해 열린다. 사회적경제 퀴즈대회, 사회적경제 체험마당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공단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지역이 함께 교류·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서귀포에 위치한 총 6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세제, 공예품, 지역특산물 먹거리 등의 판매와 함께 상원빵 샌드위치·감귤과즙·친환경 비누·공예품 만들기 등 공단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서귀포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개최하는 혼디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4)733-8219. 문미숙기자

## 비좁은 장소·참여형 프로 강화 과제로

### 25회 칠십리축제 평가보고회

올해 사반세기를 맞은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비좁은 행사장소와 편의시설 확충,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서귀포시는 9월 27~29일 사흘간 자귀리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 평가보고회를 13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중회의실)에서 열었다. 평가보고회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광순 축제조직위원장, 축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유공자 포상, 개최 결과보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축제의 전반적 평가에서는 서귀포 105개 마을의 문화·자랑거리를 소재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마당놀이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 축제기간 야간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 점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축제기간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유효표본 400명)에서도 축제 재방문, 공간 구성,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 재미와 다양성, 지역문화 이해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 발전방안으로 편의시설(주차장·휴식공간)과 프로그램 확장, 참가자 규모에 못미치는 행사장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퍼레이드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편성,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기존 연계 프로그램의 연출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발전방안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축제에 적극 반영,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내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주시 내달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을 내달 31일 까지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전적, 녹비종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국비사업(국비 50%·자부담 50%)이다. 지원 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 증은 15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 기한내에 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36농가에 623ha의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